



국제리뷰

- 캄보디아 인신매매피해자 지원 국제개발협력사업
이미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마르세이유 오펜듀노르 협동조합의 설립배경과 이슈
양애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남궁윤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캄보디아 인신매매피해자 지원 국제개발협력사업

이미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신매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은 2003년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우선주제로 선정되었으며 유엔도 시급히 다루어야 할 이슈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성매매피해자 지원 정책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한국이 동남아시아 개도국 인신매매 피해방지 및 지원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여성의 인권 및 안전 보호를 위한 ODA 권고’ 이행에 기여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착취 인신매매가 심각한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성착취 인신매매 방지 사업 지원을 2013년에 시행할 것을 계획하였고 본 연구원에서 관련 ODA 사업을 맡게 되었다.

2013년 성착취 인신매매 방지 개도국 ODA 지원 사업 대상국으로 캄보디아가 선정되었다.

캄보디아는 베트남과 라오스, 태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국가 중 가장 빈곤하며 캄보디아 매콩강 유역에서는 성착취 인신매매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국무부 TIP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에 의하면 상당수의 캄보디아 여성과 아동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주변국으로 인신매매되거나 베트남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US Department of State, 2012).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아동 성매매를 목적으로 찾아오는 방문객도 상당하다. 캄보디아가 당면한 빈곤은 세계화라는 요인과 맞물려 인신매매 및 성매매가 활성화되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캄보디아 내에서 성매매 여성은 17,000~18,000명(Bouhours et. al, 2012), 미국 비영리기관인 Human Rights Vigilance Cambodia(HRVC)는 약 80,000명에서 100,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성착취 인신매매 및 성매매 피해는 심각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3년 여성가족부와 본 연구원은 캄보디아 성착취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캄보디아 민간단체인 Cambodian Women’s Crisis Center(CWCC)를 통해서 성착취 인신매매 방지 사업을 지원하였다. 이 같은 국제개발 협력사업은 추후 캄보디아 및 인근 국가에서의 성착취 인신매매 방지 사업 지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적 혼란과 극심한 빈곤을 경험하는 캄보디아에서 여성인권 옹호와 관련된 활동은 미약하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인 CWCC는 성평등과 평화 문화를 고취시키고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되어, 여성권리 증진과 관련된 활동을 전개하고 여성폭력 등으로 위기에 처한 취약 계층 여성에게 쉼터 및 자립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CWCC는 국내외 기관의 지원으로 캄보디아 여성인권

지원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2013년도 여성가족부와 본 연구원의 지원은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된 CWCC의 기존 사업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2013년도 캄보디아 성착취 인신매매 방지 지원 사업의 사업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캄보디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국인 태국과 국경을 마주하는 반티민체이(Banteay Meanchey)지역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성착취 인신매매 예방교육의 실시와 사회인식 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마을주민, 이주경험이 있는 사람,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둘째, 직업훈련 제공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이다. 프놈펜에 위치한 CWCC 센터에는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를 포함한 여성폭력 피해자와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옷 만들기, 공예품 만들기 등의 전통적 직업교육 훈련이 이루어지는데 2013년도 한국의 지원으로 오븐과 커피기계를 구입하여 입소자에게 제빵제과 기술과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하였다.



▲ 반티민체이 지역 인신매매 방지 교육과 마을에 인접한 국경 초소의 모습

캄보디아에서는 매년 12월 인신매매방지의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는데, 2013년도에는 한국의 지원으로 반티민체이 지역에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였다. 반티민체이 부지사, 캄보디아 World Vision, UNIAP(The United Nations Inter-Agency Project on Human Trafficking), 지역 학생, 여성가족부 담당공무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담당자, 본 연구원 연구진, 캄보디아 언론매체가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인신매매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행사를 통해 반티민체이 주민과 학생들에게 성착취 인신매매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홍보하였다.



◀ CWCC가 주최한 반티민체이 지역 인신매매 방지의날 행사 거리 행진

캄보디아 정부는 국민을 위한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에 있어 취약한데,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사업은 민간단체인 CWCC와 같은 기관에서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개도국 대상 성착취 인신매매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도국 내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적극적 협력과 교류가 필요하다. 2013년도 사업을 기반으로 향후에도 인신매매 및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개도국 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통해 개도국 여성의 인권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Peer Educator가 교육을 진행하는 마을



교육 진행 모습 (그림책 사용)

▲ 반민체이 지역 마을 주민 대상 인신매매 방지 교육 장면



▲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구입한 오븐과 커피기계, 제빵제과 교육 실습 장면



▲ CWCC가 주최한 반티민체이 지역 인신매매 방지의 날 행사장면 (가운데 여성가족부 홍현주 과장님 연설장면)

참 · 고 · 문 · 헌

Bouhours, T., Broadhurst, R., Keo, C., & Bouhours, B. (2012). Human trafficking and moral panic in Cambodia: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good intentions.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190704

U.S. Department of State (2012)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캄보디아 여성위기센터(Cambodian Women's Crisis Center) 홈페이지:
<http://www.cwc.org.kh>

마르세이유 오텔듀노르(Hotel du Nord) 협동조합의 설립배경과 이슈¹⁾

양애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남궁윤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으로 협동조합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경제활동 혹은 사회 참여의 한 방식으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협동조합 설립신청건수는 총 3,148건으로 이 중 3,057건이 신고수리 또는 인가를 받았다. 월평균 약 255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된 것이다.

지역사회의 복지·환경·교육·돌봄·문화적 부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요를 일자리 창출로 전환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활용은 여성인력의 고용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동조합은 자립과 자치를 기반으로 하면서, 기존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등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사업대안 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협동조합을 통한 기업 경영 경험이 사회적으로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해외의 협동조합 성공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여성친화적 협동조합의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정책적 함의를 시사 받고자 한다.

문화유산 협동조합 오텔듀노르(Hotel du Nord)는 2011년 1월 1일 마르세유에서 설립되었다. 오텔듀노르(Hotel du Nord)는 1995년 지역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인 '마르세유 북부지역 문화유산 과정'의 일환으로 주민활동을 위해 시작되었다.

마르세이유는 역사적으로 교류와 이민을 중심으로 발전한 항구도시로 '유산(patrimoine)이 없는 지역'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15,16구에는 정치적·사회적 생활에서 단절된 사람들이 많았다.

마르세유 항구 뒷골목 도시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1995년 프랑스 정부, 마르세유 시, 대학교, 국립 토지공공운영센터, 유럽이사회는 유럽통합문화유산실험단을 설립하였다.

1) 본 내용은 마르세유 오텔듀노르(Hotel du Nord)협동조합 홈페이지 및 관계자 면담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문화유산 관리자’ Christine Breton(스토리텔링가)은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과 협회를 만나 그들이 이야기, 역사를 들으면서 문화유산에 대해 조사했고 유산이 15, 16구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후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다시 살리기 위해 주민들의 모임을 결성하였다.

2005년 유럽이사회는 문화유산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협약인 『파로(Faro) 협약²⁾』을 채택하였다. 문화유산공동체 회원들은 마르세유 15구와 16구의 문화유산 위원회에 의석을 갖고(연 4차례의 위원회), 문화유산의 경제적 가치강화를 위한 위원회 준비를 담당하였다. 2010년 ‘유럽문화유산의 날’ 기간에 세미나 및 전시회, 민박시설, 문화유산산책 사업의 시범 운영이 성공을 거두자 문화유산공동체 회원들은 오펬듀노르(Hotel du Nord)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오펬듀노르(Hotel du Nord)협동조합은 지역 내 유산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유산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펬듀노르(Hotel du Nord)협동조합은 50여개의 민박시설(2013.9기준), 문화유산을 알려줄 50여명의 민박운영주, 그리고 전체 협력기관들이 연합하여 개발한 문화유산 코스를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이다.

오펬듀노르(Hotel du Nord)협동조합은 문화유산과 관광(손님맞이)을 결합한 형태로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원칙으로 한다. 즉, “이웃으로 사는 지역 모두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생산한 것을 판매하고, 우리가 판매한 것을 생산한다.” 결국 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사는 곳에서 일하는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자체 생산한 것을 판매하며, 판매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또,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가입, 조합원에 대한 공평하고 민주적인 권리(조합원 한 사람당 하나의 투표권), 주민들의 감독권, ‘민박운영자 학교’와 노하우 교류 및 장비 공동사용(웹사이트, 브랜드), 자율성과 독립성 등을 원칙으로 한다.

오펬듀노르(Hotel du Nord)협동조합은 경제적 가치 상승과 더불어 ‘시민사회-기관’의 협력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활동 조직이다. 또 파로협약(‘Convention de Faro’)을 통한 거버넌스(주민(유산공동체)-정부, 위원회-조합 연계)를 실천하고 있다.

오펬듀노르(Hotel du Nord)협동조합은 숙박(‘문화유산 방’ 운영), 산책 프로그램, 지역내 생산품 판매 및 홍보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성공프로그램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의 협회, 사회복지센터, 전문 교육가들과 협력하여 학교 및 사회 부적응 청소년, 젊은이들을 가이드로 양성하여 청소년들을 산책 안내자(가이드)로 참여 시켰다. 젊은이들은 임금을 받고 일종의 자격증도 받게 되며 사회·고용에 재편입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이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고, 더불어 지역의 이미지도 재고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이 협약은 문화유산의 통합적 접근에 관한 30년간의 연구를 통합하고, 그 적용에 대한 주요 원칙을 열거함. 또, 문화유산의 개념을 확대하여 그 중심에 사람을 놓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의 원천으로서 문화유산의 가치와 잠재성을 제시함.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자신이 선택한 문화유산에 집중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함. 협약의 목적은 협약의 원칙을 실제 적용하는 역동적 과정을 통해 범유럽 협력의 틀을 세우는 것임

오펠두노르(Hotel du Nord)협동조합은 지역 발전과 지역의 이미지를 변화시켰으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얻었다. 오펠두노르(Hotel du Nord)협동조합이 공식적인 지역관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볼 것 없고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던 노르 지역에 사람들이 관광으로 온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 의미는 매우 크다. 또 50여개의 산책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임은 산책 가이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더 나아가 여성 협회나 지역내 기업 등과 협력 관계를 맺어 여성들이 수공업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현재 오펠두노르(Hotel du Nord)협동조합을 활성화하는데 몇가지 제약이 있다. 조합의 경제활동은 보통 민박에 의존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회 시설 주택에 거주(자신이 집의 소유주가 아니므로)하고 있어 민박을 할 수 없다. 이러한 부분은 현재 기관과 논의 중이나 법이 바뀌어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또 민박은 아침만을 제공할 수 있다. 그 외의 식사는 제공이 어려우며 외식 업자를 연결해 줄 수만 있다. 식사나 식전음식을 준비하는 부분을 여성들과 협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외식 산업 규제가 심해 몇일 간의 연수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해결된다면 일자리 창출이 더욱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친화적 협동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협력조직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자발적 조직만으로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이를 연계하고 지원할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하다. 자발적 조직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자본을 확충시킬 수 있는 지자체의 인프라구축 및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다른 경제활동 경험, 창업태도 등을 가지고 있어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실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애로사항과 고충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고, 남성들과 상이한 경험에 기반한 보다 여성친화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성을 위한 협동조합 전문 지원기관은 없고, 각 지역 및 기관별로 개별적이고, 간헐적인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향후 여성 협동조합 (전담)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어 전국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